지역 소식통

김제시농기센터 농촌체험 마을학교 '호평'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에서 운영하는 벼고을 농촌체험 마을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농촌체험 마을학교는 4월부터 11월까지 85회에 걸쳐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 4,66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마을은 부량 벽골제마을 및 성덕 남포들녘마을, 백산 수록골마을, 용지 황토마을, 금구 외갓집마을 등 22개 체험처이며 농촌마을의 전통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보리강정 만들기, 나무공예, 쌀피자 만들기, 공예체험, 두부 만들기 등 농촌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어촌공 동진지사, 재해 비상훈련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병수)는 지난 20일과 21일에 본격적인 농번기와 장마 대비에 따른 자체 재해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해 예기치 못한 이상홍수 등으로 인해 저수지 붕괴, 배수장 가동중단 등 수리시설물의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침수피해 최소화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대응능력 제고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재해대비 비상훈련으로 실시했다.

이번 가상훈련은 당월저수지를 비롯 백산저수지, 청하배수장에서 재해훈련을 실시해 제방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하류지역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배수장 가동과 응급복구 등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처상황을 가상했으며 연습결과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토의 및 강평 등으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향후 장마철 및 태풍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시 반영하기로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협, 부녀회장회의 개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부녀회장회의를 열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부녀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부녀회장회의 임원을 선출하고 농협과 부녀회장회의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부녀회장회의 회장에 박승임(제월동), 부회장에 김옥자(하동), 감사에 손순옥(서암동) 씨가 선출되었다.

김제농협은 김제시내 4개 동과 부량면, 죽산면을 관할로 207개의 마을별 부녀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속적 축제 전환 힘 합친다

김제시-청진회, 지평선 축제 도약 업무 협약 체결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지역봉사단체인 김제청진회와 오는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리는 5년 연속 대표축제인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의 글로벌 축제 도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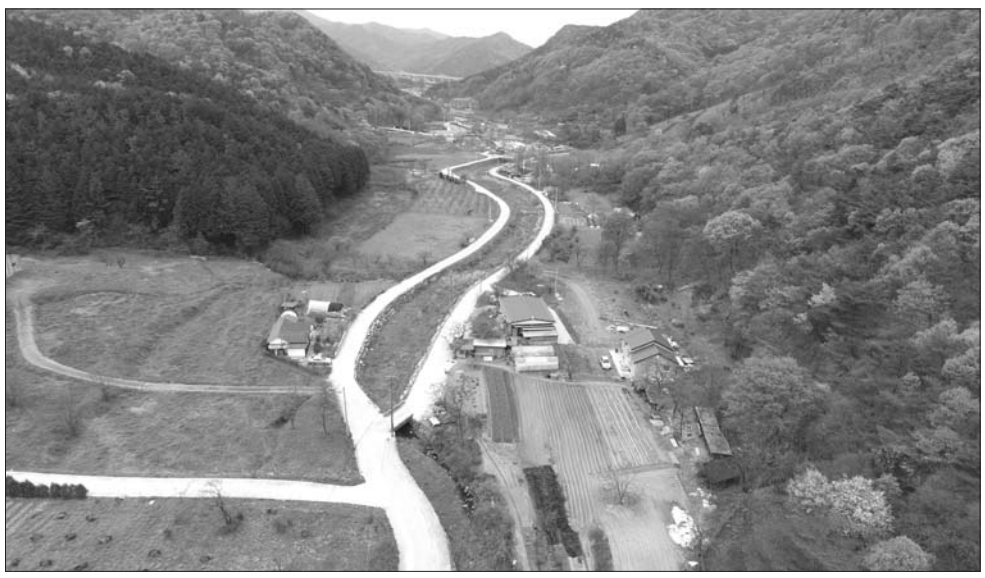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대표축제로 Beyond Korea, Global Gimje Horizon Festival이란 새로운 비전 제시로 올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의 전환을 위한 수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협력체계를 구축한 김제 청진회(회장 김재문)는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46년 전통의 지역봉사단체로써 독거노인 경로위안잔치, 불우노인 및 소외계층 위로행사를 비롯해 관내 불우학생 장학금 지원 등 폭넓은 지역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제시 관내 사회단체 중 처음으로 김제지평선축제(가족 대항 초가집 만들기)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재료 등 제반경비를 직접 후원하는 스폰서십으로써 기존의 관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제청진회 김재문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김제시와 협약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 상호 발전을 위하여 더욱 협력체계를 굳건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하천 주변에서의 건축물 인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시 소하천 제방도로의 진출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제방도로 진출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완화

완주군, 소하천 제방도로 주변 개발행위 활성화 기대

앞으로 농가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소하천 제방도로 주변의 개발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하천 주변에서의 건축물 인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시 소하천 제방도로의 진출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소하천 제방도로는 공사 추진시 진출입로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주민들의 농가주택, 축사, 태양광 시설 등의 신축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완주군은 국민안전처 및 중앙부처에 이러한 규정의 완화를 꾸준히 건의한 결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이번 규제완화로 개발행위시 진출입도로로 사용 가능한 제방도로는 소하천 정비가 완료되어 폭 3m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와 공공으로 이용되는 구간이다.

특히 이 조건을 충족한 소하천 제방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이용하면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하천 인근의 농지 활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완주군의 도시민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소하천 제방도로를 각종 개발행위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무척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더욱 능동적인 위민행정을 펼쳐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무궁화테마식물원 상춘객 '유혹'

완주군의 고산문화공원… 튤립 · 수선화 · 꽃잔디 등

알록달록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은 완주군의 고산문화공원 무궁화테마식물원이 상춘객을 유혹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현재 무궁화테마식물원에는 지난해 가을에 심은 5종, 3000본의 튤립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또한 튤립 외에도 산벚나무, 명자나무, 수선화, 꽃잔디 등 다양한 꽃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는 철쭉과 장미꽃이 개화할 예정이어서, 봄나들이를 오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궁화테마식물원에는 계절별 꽃 외에도 열대성 식물 온실과 난대성 식물 온실이 있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다.

군 시설공원사업소 관계자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여 무궁화테마식물원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휴식도 취하고 아름다운 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무주종합복지관, 효 문화체험 실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는 지난 21일 무주종합복지관 일원에서 무주군 내 아동, 초, 중, 고등학생, 장애인, 지역주민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주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무주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제 5회 효 문화체험이 실시됐다.

효 문화체험은 노인인식개선과 세대통합을 위해 효 실천 사례를 주제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실시하여 무주군내 아동·청소년·장애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세대공감 놀이마당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한손으로 종이접기, 가족사진촬영, 네일아트, 풍선아트, 페이스페인딩 등 어른들에게는 어린시절을 추억하고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경험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간의 이해를 키우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효문화체험은 향후에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유관기관과 참여 어린이집, 학교, 무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